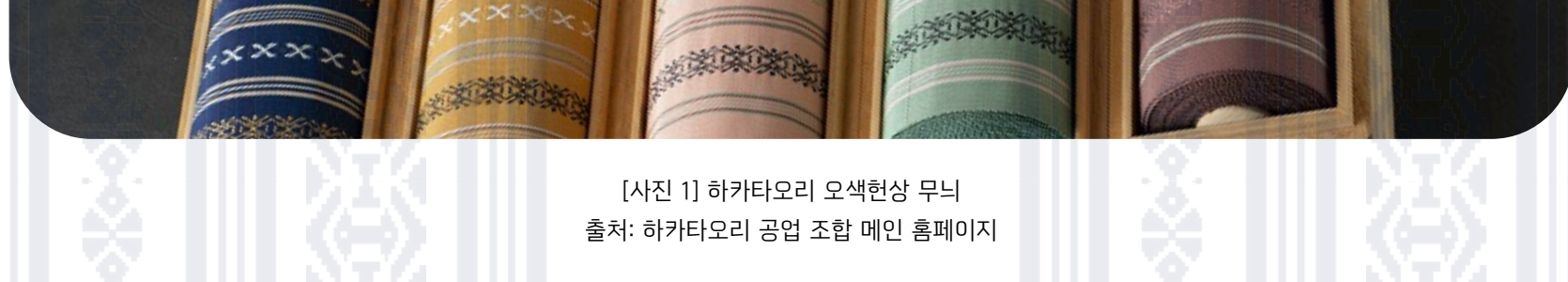


하카타오리(博多織) '계승'의 변화

24학번 고*현, 김*진, 선*범, 정*현

하카타오리(博多織)란?

일본 경제산업성이 지정한 후쿠오카현(福岡県)에 존재하는 7종류의 전통 공예품 중 하나. 780년의 역사를 지닌 후쿠오카 전통 공예품의 대표격이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직물 공예품이다. 가마쿠라 시대 상인 '미쓰다 아자에몬(満田彌三右衛門)'이 송나라에 건너가 하카타(博多)로 가지고 온 기술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쇼군에게 바치기도 했다. 당시 쇼군에게 헌상했던 이른바 '헌상 무늬'는 현재까지 후쿠오카 지역의 상징적인 무늬로서 다양한 장소에서 사용되고 있다.



[사진 1] 하카타오리 모색헌상 무늬
출처: 하카타오리 공업 조합 메인 홈페이지

들어가며

일본의 전통 산업은 1980년대를 전후로 급격하게 쇠퇴하고 있다. 장인의 전통 공예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생산액도 줄어들게 되었고, 이 영향으로 장인이라는 직업이 돈과는 동떨어진 명예직에 가까운 이미지를 갖게 되어 후계자가 줄어들고 명맥이 끊기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후쿠오카현도 마찬가지이다. 후쿠오카현에는 일본 경제산업성의 기준에 따라 선정된 7종류의 전통 공예품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기모노의 허리띠인 오비에 사용되어 온 하카타오리는 일본 근대화 영향으로 의복 문화가 변화하자 자연스럽게 그 생산량이 줄어들어, 지금의 하카타오리 산업은 쇠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실제 후쿠오카현 상공부에서 발표한 '후쿠오카현 경제 데이터 파일'에 따르면 하카타오리의 생산액은 1993년에 55,260억 엔을 달성한 것에 비해 2013년에 20,728억 엔으로 20년 만에 약 50% 이상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예상과 달리 후쿠오카시에는 헌상 무늬를 활용한 장식물이 곳곳에 설치되어있었고, 애니메이션 및 타 브랜드와의 협업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24년 중순에는 유명 레슬러에게 제품을 협찬해 준 것이 자그마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러한 하카타오리의 현황은 과거에 비해 산업 규모가 줄어든 것이 맞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명맥이 끊겨가는 전통'이 아니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산업 규모가 줄어들었다는 상공부 및 여러 기관의 데이터 자료와 달리 하카타오리가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고자 한다.

전통적인 하카타오리 계승 방식

전통적인 하카타오리의 계승 방식은 가문 내에서 이어지는 가계 계승과 지역 내에서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지역 계승, 두 가지로 나뉜다.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당시에는 먼 곳으로의 이동이 어려워 이러한 계승 방식이 주를 이뤘다. 주목할 점은 장인이라는 직업은 사명감이 아닌 생계를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이다. 지역 계승은 직업 선택의 여건이 좋지 않아 생계유지를 위해 선택한 것이었고, 가계 계승은 가업을 물려받는 것이 전통, 기술과 함께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방식이었다.

지역 계승 방식의 예로 73년 경력의 장인 기무라 사지오(木村佐次男) 씨를 들 수 있다. 현재 '기무라 하카타오리 수직 전문 공방'을 운영 중인 기무라 씨는 섬 출신인 탓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여의찮았다. 이에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기회가 없었고, 생계를 위해 하카타오리 장인의 공방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야카타(親方/おやかた)에게 일과 장인이 되는 과정을 배웠지만, 이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살아가기 위한 수단으로 사명감이 아닌 생계를 위한 것이었다.



[사진 3] 기무라 씨의 수직 공방 내부
(24.08.25/필자 촬영)



[사진 4] 인터뷰 이후 기무라 씨와 기념 사진
(24.08.25/필자 촬영)

가계 계승 방식의 예로는 기무라 씨의 딸이자 현재 전통 공예사를 준비하고 있는 기무라 유키코(木村ゆき子) 씨를 들 수 있다. 기무라 사지오 씨의 은퇴가 가까워지자, 기무라 유키코 씨는 자연스럽게 그 뒤를 이어 생계를 위해 가족의 가업을 잇는 역할을 맡고 있다. 기무라 유키코 씨가 장인으로서의 길을 선택한 이유는 "아버지의 일을 자주 봐와서 익숙했고, 또 남아있는 설비가 가까워서"로, 자주 접해왔기에 거부감이 적었고, 이미 갖춰진 설비가 있기에 진입 장벽이 낮았기 때문이었다.

하카타오리 계승 방식의 변화

21세기에 들어서며 교통과 연락 수단, 대중매체 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하카타오리 계승 방식 또한 변화를 맞이했다. 장인과 전혀 연이 없던 사람들도 하카타오리 장인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게 되었고, 이에 흥미를 느껴 장인이 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즉, 현대의 하카타오리 장인 계승은 단순히 단절된 지역 내에서 생계를 위해 이루어지는 것, 가업을 잇는 것을 넘어서 '본인이 장인이 되길 희망하여 공방으로 찾아가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러한 계승 방식은 하카타오리 전문 양성 학교(이하 '하카타오리 DC')라는 교육시설이 생겨났기 때문이다. 2006년 개교 이래 수많은 전통 공예사를 배출한 하카타오리 DC에서 학생들은 기술·미술·이론·정신 등 다방면으로 2년간 교육을 받는다.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학생은 졸업 이후에 공방을 차리거나 직물 회사에 취업하는 등 활동을 하나가며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장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카타오리 DC는 신입생을 모집하기 위해 관계자 인터뷰나 TV 출연 등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먼 곳에서 찾아온 학생도 많았다.



[사진 4] 하카타오리 DC 실습장 내 모습
실습장에는 수업에 사용하는 기계가 진열되어있다.
(24.08.26/필자 촬영)



[사진 5] 하카타오리 DC 교실 내 모습
교실에는 수업에 사용되었던 레퍼런스 등이 진열되어있다.
(24.08.26/필자 촬영)

실제로 학교의 한 학생에게 인터뷰를 진행한 결과, '어째서 장인이 되기로 하셨나요?'라는 질문에 '수공업에 종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만드는 걸 좋아하는 마음에 시작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이는 곧 현재의 계승이 하카타오리에 연이 있어야만 개인적으로 배울 수 있었던 과거의 계승과는 달리 본인이 원하여 직접 학교를 찾아가 배우며 계승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화해 가는 것을 보여준다.

하카타오리 계승의 의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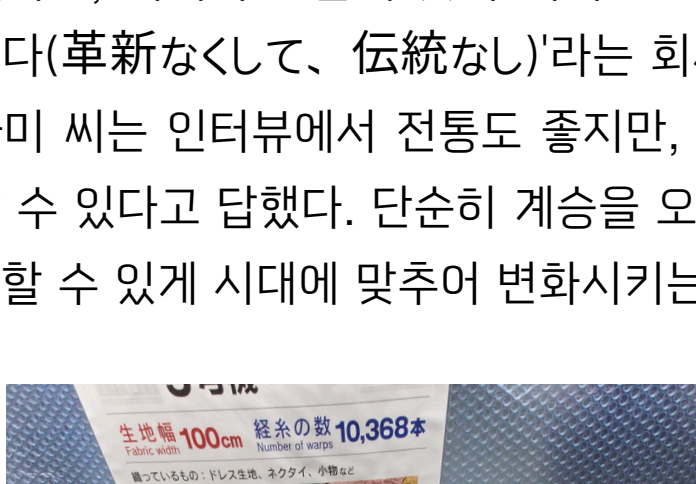
오야카타에서 제자로,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선생님에게서 학생으로. 장인 계승의 주체는 시대를 거쳐 가며 바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어디까지나 계승하는 측과 계승 받는 측이 만나는 방식의 변화일 뿐 본질적으로 '장인이 제자를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차세대 장인이 된다'는 전통적인 방식에는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 인터뷰와 견학을 통해 시간이 흘러 장인 및 전통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하면서 계승의 의미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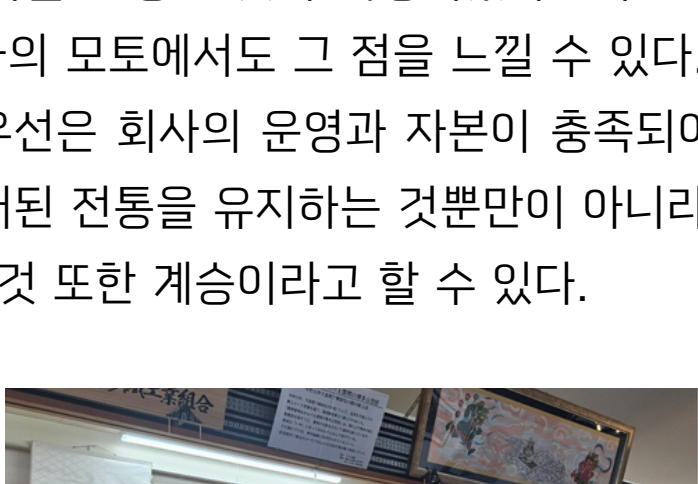
[사진 6] 다쿠미 갤러리에서 전시된 하카타오리
(24.08.25/필자 촬영)

우리가 방문했을 당시 다쿠미 갤러리에서 근무 중이었던 미야지마 미키(宮嶋美紀) 씨는 14년이라는 경력을 지닌 하카타오리 전통 공예사이다. 미키 씨는 전통문화 자체에 큰 흥미를 느끼고 공부하여 장인이 되었으며 또 장인으로서의 모토 자체도 '전통을 다음 세대로 전하고, 남기고, 잇는 것'이었으나, 특이하게도 제자를 들이는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분이었다. 동시에 미키 씨는 전통을 계승하는 방식의 예시로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하카타오리 홍보 활동과 체험 활동 등을 꼽았다. 꼭 장인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에 하카타오리라는 것을 알리는 행위 자체를 계승의 한 과정으로 본 것이다. 대중에 하카타오리가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그에 대해 흥미를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이는 미래에 하카타오리라는 산업에 종사할 사람들을 늘리는 결과를 낳는다. 단순히 계승을 정해진 제자를 가르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대중에게 가르쳐 잊히지 않는 것을 포함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경향은 하카타오리의 브랜드 중 하나인 사누이 직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누이 직물의 가장 큰 특징은 '장인과 제자'라는 구분이 없다는 것이었다. 어디까지나 직물 회사로서 직원과 사원이 존재하고 상사가 부하직원을 가르칠 뿐 장인이 제자를 가르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곳에는 수제 직물을 만드는 장인이 아닌 직물 기계를 관리하는 엔지니어가 존재할 뿐이었고, 실제로 인터뷰를 진행했던 사누이 직물의 엔지니어 무라카미 씨 또한 자신을 장인이라고 지칭하지 않았다. 또한 하카타오리의 여러 브랜드 중에서도 가장 혁신을 중시하는 회사로, 시대의 흐름에 맞춰 여러 현대화를 진행한 것이 특징이었다. '혁신이 없다면 전통도 없다(革新なくして、伝統なし)'라는 회사의 모토에서도 그 점을 느낄 수 있다. 이에 대해 무라카미 씨는 인터뷰에서 전통도 좋지만, 우선은 회사의 운영과 자본이 충족되어야 전통도 번영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단순히 계승을 오래된 전통을 유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대에서도 소비할 수 있게 시대에 맞추어 변화시키는 것 또한 계승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 7] 사누이 직물회사 공방 내 기계
넥타이, 소품을 생산하는 기계. 외부인을 위해 설명이 붙여져 있다.
(24.08.27/필자 촬영)



[사진 8] 사누이 직물 본사 내부
외부인을 위해 하카타오리의 역사 등 설명이 적혀져 있다.
(24.08.27/필자 촬영)

결론

과거 20세기 이전의 장인은 대부분 생계를 위해 장인이 되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교통 시설이 발전하고 하카타오리 전문 양성 학교가 생김에 따라, 사람들은 '본인이 하고 싶어서' 장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계승은 그 의미 자체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20세기 이전, 하카타오리의 계승이라는 것은 장인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만을 의미했다. 하지만 '계승'이라는 것은 이제 스승과 제자를 벗어나 '대중에게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확장되었다. 하카타오리의 계승이라는 것은 단순히 스승과 제자 간의 연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중이 하카타오리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계승 방식, 의미의 변화를 통해 하카타오리가 지금까지 보존될 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장인이 되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은 줄어들고 있으며, 종사자의 연령은 고령화하는 조짐이 보인다. 하지만 후쿠오카현 사람들에게 각인된 하카타오리는 맥이 끊기지 않을 것이다. 후쿠오카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카타오리를 알리려는 활동을 계속하는 한, 하카타오리는 제자가 아닌 대중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계승되어 갈 것이다.